

##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 과정 -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

신 영 주<sup>†</sup>  
국립춘천병원

김 유 숙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DSM-IV-TR(2000)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고 알코올 병동에 입원한 경력을 가진 여성 알코올 의존자 14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개방코딩 과정을 통하여 개념, 하위범주, 범주를 도출한 다음,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축코딩을 하였다. 그리고 선택코딩을 통하여 여성 알코올 의존자 중독과정의 핵심범주를 파악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근거이론으로 개발하였다. 핵심범주로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이 도출되었고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을 하며 점차 술에 의존하는 단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중독과정 이론을 응용한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하나의 기틀을 제공해주며,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 알코올 상담센터 등의 여러 기관에서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여성 알코올 의존, 근거이론, 심층면담, 중독과정

\* 본 연구는 신영주(2008)의 박사학위논문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의 일부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신영주, 국립춘천병원 임상심리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 5리 713

Tel : 033-260-3219, E-mail : micha1004@hanmail.net

남성만의 특권인양 여겨져 온 음주가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진출의 확대, 그리고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최근 여성 음주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초래되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음주자가 85.4%, 여성 음주자 수는 54.7%로 남녀간에 30%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중 음주자가 94.6%, 여성 음주자가 80.7%로 그 격차가 10% 정도로 줄어들었다(한국음주문화센터,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보건조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성인여성 가운데 알코올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은 1998년 3.1%에서 2001년에는 10.5%로 3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성인 여성 음주자가 5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가진 여성은 55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은 24.1%에서 26.1%로 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다(동아일보, 2005, 3.29). 최근 이같은 동향으로 비추어 보면, 대다수의 성인 남녀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특히 근래에 남녀 간의 음주자 비율의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여성 음주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알코올 의존자는 남성 알코올 의존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들을 나타낸다. 남성은 사교적 음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심리적 갈등이 많았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한 상태에서 남성으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남일보, 2005, 11. 11).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의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대사능력

이 떨어지는 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더 적은 양의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간경화, 알코올성 간염 등 신체적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성도 크다. 그 외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주는데 알코올 의존 여성의 경우 60%가 생리주기 이상을 호소하며, 임신 초기의 유산빈도도 증가한다. 또 출산을 하더라도 임신 중 마신 술로 인해 태아성 알코올증후군(Fatal Alcohol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 남성 알코올 의존자들보다 구조적,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이 더 많고 여성이면서 동시에 알코올 의존자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심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뒤따르며 치료의 기회도 박탈되어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주생활을 계속하는 데에도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McNally, 1989).

이처럼 여성 음주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은 주로 남성에만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유병율이나 입원율이 남성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남성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소수의 여성만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성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 인구학적·임상적 특징들(박두병, 남범우, 신광철, 나철, 1996; 정원후, 김성부, 장기용, 손진욱, 박철수, 1997; 성상경, 신동환, 송종호, 이규향, 1999)을 다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송신희, 2003; 최진경, 2003; 정선영, 2003; 이각원, 2005).

이같은 여성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인간행동들을 평면적으로 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보다 깊이 있게 중독자의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몇 편의 연구가 시도되어(이정숙, 2000; 임선영, 2002; 김성재, 2006), 알코올 중독 여성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경험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정숙(2000)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경험에 중점을 두어 그 의미를 현상학적 접근으로 밝히고 있고, 임선영(2002)은 중독과정의 특징을 성장배경, 성격 특징, 중독과정에서의 음주형태, 음주동기, 심리기제의 변화과정, 회복과정 차원에서 알아보고 있다. 김성재(2006)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알코올 중독 여성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경험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중독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지는 통합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었지만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여성 알코올 중독의 역동적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떻게 음주가 시작되어 음주문제로 진행되어가고 중독으로 되어가는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음주를 하는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분석 및 설명하고자 하며, 이들 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경험이란 그 인간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성의 음주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Blumer가 제안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이며, 이에 상징적 상호작용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따르는 것이 연구목적을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판단되어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였다.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DSM-IV-TR(2000)의 진단 기준에 의하여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된 자로, 알코올 병동에 입원한 경력을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14명의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대상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미리 설정할 수가 없다(Morse, 2000).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범주의 속성을 발달시키는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포화의 신호인 중복, 반복, 지루함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인터뷰 전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경우 익명성이나 비밀보장 및 연구철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과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해나갔다. 자료수집이 후기로 진행되면서 핵심 범주와 분석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표집하였다. 한 참여자로부터의 분석결과가 다음 참여자에게 나타나는지 질문을 반영, 비교하였고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였다. 참여자 12번째 이후부터는 1~2가지의 범주만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마지막 참여자인 14번째 참여자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주, 속성이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자료수집방법

근거이론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하려는 상황에 들어가서 참여자들의 문화와 행위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문헌을 읽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치료를 3년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알코올환자 자조모임인 공개 A·A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의 경험담을 경청하는 등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로부터 알코올 중독과정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자의 의무기록, 알코올중독 체험수기 등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얻었다. 면담은 2007년 2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4명의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전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을 사용할 것과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한 참여자당 최소한 2번 이상의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질문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대담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인터뷰내용은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여 기록하였고, 각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바로 참여자의 감정변화와 목소리 톤의 변화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연구자의 면접 시의 생각 등을 메모로 기록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필사하였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에서 후기에는 이론을 유도해 내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둔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비교분석을 위해 1차 인터뷰가 끝난 뒤 녹음된 내용을 기록하여 개방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을 하면서 연구자가 받은 첫인상 및 생각에 대해서 메모하고, 다음 인터뷰 및 관찰을 위해 찾아야 할 것, 물어보아야 할 것과 표본추출 할 것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 물어보지 못했던 내용과 1차 인터뷰 후 확실치 않고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참여자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비교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는데,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떠오른 생각들과 개념들을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며, 분석을 통해 이론을 정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다.

####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즉 관찰, 자료의 수집, 자료의 조직 및 자료로부터의 이론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들을 다른 자료들과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되기도 하였다.

각 분석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개방코딩의 과정으로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자료에서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개념을 추출한 뒤 유사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예를 들면, 원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 중 하나인 가족과의 갈등요인으로 ‘신체적 폭력’, ‘무관심’, ‘대화단절’, ‘과다 음주’, ‘의치증’, ‘도박행위’, ‘잡은 부부싸움’, ‘이혼’을 개념으로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은 ‘남편과의 갈등’이란 하위범주로 통합된 후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2단계는 축코딩의 단계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근거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하면서 각 범주들을 연결하였고,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축코딩에서의 분석도구인 패러다임은 이러한 범주의 관련성을 통합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역동적 흐름이므로 범주간의 관련성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예를 들자면,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음주를 하는데 있어서 인과적 조건은 ‘어릴 적 심리적 상처 경험’, ‘가족과의 갈등’, ‘타인과의 물리적·심리적 교류단절’, ‘경제적 어려움’이란 범주이고, 현상은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이며,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에 놓여 있는 상황의 맥락적 조건은 ‘술과 가까운 환경’, ‘술에 관대한 문화’, ‘가족력’이 선정되었다.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이란 현상은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 ‘극단적 해결책 시도’,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심리적 교류를 함’, ‘활동적인 생활을 함’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다뤄지고 조절되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부정적 정서 및 사고’, ‘자기표현의 어려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함’, ‘술에 의존하게 됨’, ‘일상생활의 어려움’,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함’, ‘단주와 재발을 겪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독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참여자가 음주를 시작하면서부터의 경험과정을 순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중재적 조건

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전략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인 경험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중심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중심현상을 속성과 차원의 맥락적 조건을 통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중재적 조건변수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3단계는 선택코딩의 단계로 코딩의 마지막 단계이다. 모든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이야기 윤곽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범주를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의 평가

질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적 배경, 연구목적 등에서 양적 연구와 구별되기 때문에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적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시키고 참여자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자료수집 시에 참여자와의 신뢰할만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얻고자 노

력하였으며,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알코올 중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개방적인 질문 방식으로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메모하여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추후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가 도출한 개념이 그들의 경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이 연구의 결과가 중독과정을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적합한지, 독자들이 연구 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가 있고 적용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중독과정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이론적 표집방법을 적용해 선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별된 참여자로부터 오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경제상태, 교육정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론적 표집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가 아니면서 참여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 2인에게 이 연구의 결과가 여성의 중독과정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이 잘 설명되고 있으며 의미 있는 것으로 공감하였기에 적용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본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들은 총 2명으로 근거이론 접근법으로 박사논문을 쓴 1인과 현재 같은 접근법으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1인이다. 연구자는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구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 즉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 및 수정하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어휘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문학 박사과정에 있는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수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즉 중립성은 연구자가 특정 시각을 증명하고자 한다거나 사전에 제시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과에 도달하려 하거나 시각을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자료에 드러난 실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Lincoln와 Guba(1985)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에 획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가 반드시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으나, 실재를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기 위하여 본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기, 회의적인 태도 유지하기, 연구절차 따르기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중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알코올 상담센터에 등록된 여성 알코올 의존자 14명이다.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분포는 34~58세이며, 30~35세가 2명, 36~40세가 4명, 41~45세가 1명, 46세~50세가 2명, 51세~55세가 3명, 56세~60세가 2명으로서 이들의 평균연령은 44.6세였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1명, 초졸이 2명, 중졸이 1명, 고졸이 7명, 대학중퇴가 2명, 대졸이 1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참여자 중 4명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혼이 7명, 재혼이 1명, 사별이 1명, 미혼이 1명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인 경우가 4명, 자영업은 3명, 일용직 4명, 생산직이 3명이었다. 입원 횟수는 1회는 4명, 2회는 4명, 3회는 3명, 5회 이상은 3명이었다.

### 개방코딩 및 축코딩결과

개방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145개의 개념과 49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추상화시켜 19개의 범주가 추출되었고(표 1 참조) 축코딩단계에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며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교

표 1.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 경험에서의 범주, 하위범주, 개념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어릴 적 심리적 상처경험	성폭력 피해경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	
		외롭게 지냄	부모의 맞벌이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음, 형제들과의 터울로 외동이처럼 지냄	
		모와의 부정적 경험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음, 어머니의 지나친 음주	
	가족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신체적 폭력, 무관심, 대화단절, 과다음주, 의치증, 도박행위, 잦은 부부싸움, 이혼	
		시댁과의 갈등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 당함, 부당한 이유로 이혼요구, 시어머니의 술주사, 시어머니가 집안일 도와주지 않음	
		친정과의 갈등	결혼해서도 친정식구들을 돌봄, 친정어머니의 잔소리 및 변덕을 견어냄, 친정아버지가 남동생 빚만 갚아줌	
	타인과의 물리적·심리적 교류단절	교류가 단절됨	남편의 사망, 가까운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됨, 혼자 있음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으로 힘들	과도한 빚, 가게 운영의 어려움, 남편의 사업실패, 남편의 퇴직, 남편의 무능력, 실직됨, 돈 매입	
	현상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음	현재의 고통을 잊고 싶음, 과거의 참기 힘든 고통을 잊고 싶음
	맥락적 조건	술과 가까운 환경	술과 근접함	집에 항상 술을 구비함, 주변에서 쉽게 술을 살 수 있다고 지각함, 술 마실 기회 많음
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함			술집 운영함, 술집 종업원으로 취직함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심			남편이 음주를 함, 시어머니가 음주를 함	
술에 관대한 가정문화		어릴 때부터 술 접함	집에서 술을 만들어 마셨음. 술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	
		술에 대해 관대함	가족들이 술에 대해 관대함, 남편과 술자리 잦음	
가족력	부모의 부적절한 음주행동	부모님 술 마시고 주사 심했음		
중재적 조건	부정적 정서 및 사고	우울함	삶에 대한 회의감, 죄책감, 자포자기 심정, 절망감, 좌절과 상실감, 자기연민, 자기비하	
		분노감	억울하고 분함, 화가 남, 짜증 남, 억눌린 분노감정, 배신감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 및 쓸쓸함, 무료함	
		부정적 생각	나쁜 일을 과장되게 생각함, 열등감	
	자기표현의 어려움	감정 표현을 못함	타인에게 속상한 일 이야기 안함, 내면의 이야기 잘못함, 참음	
의사 표현의 부적절	말을 조리 있게 못함			
자기주장력이 부족함	거절 못함,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음			
전략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	다양한 음주양상을 보임	혼자 마심, 몰래 숨어서 마심, 지속적인 음주, 폭음, 낫술 마심, 술 마실 때 식사안함	
		음주장소에 구애 없음	집에서 마심, 여관에서 마심, 어느 장소에서나 마심	
		술을 얻기 위한 행동화	술 마시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함, 돈이나 술 훔쳐서 마심	
	극단적 해결책 시도	문제해결력이 부족함	자살사고를 함, 자살시도를 함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교류를 함	친밀한 교류를 위한 심리적 지지를 받음	남편의 배려, 치료진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음, A·A모임 참석함, 직장동료와의 교류를 함	
활동적인 생활을 함	바쁘게 생활함	바쁜 직장생활을 함,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		

표 1.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 경험에서의 범주, 하위범주, 개념 (계속)

패러다임 요소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함	지지자원이 됨	술은 힘들 때 나를 지탱해줌, 가족들이 나를 보호해 줌
		신체적 힘 및 기분향상이 됨	기운이 남, 마음이 편안해짐, 일이 힘들 때 피곤이 사라짐, 긴장이 풀림, 생활의 활력이 됨
		대화의 촉진제가 됨	재미있게 대화가 진행됨, 남자들과 대화가 잘됨, 자신감이 향상됨
		위로가 됨	친구같이 위안을 받음, 자기위로가 됨, 술 마시면서 타인의 위로 받음
		충만한 느낌을 받음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부러울 게 없음, 센치해지고 로맨틱해짐, 좋은 음악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음,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낌
	술에 의존하게 됨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게 해줌	잠이 잘 음, 홍보는 느낌에서 벗어나, 환시·환청에서 벗어나
		습관성음주	술을 찾아 나섬, 술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음
		강박적 술충동	순간 마시고 싶은 유혹 못 뿌리침, 짜릿함을 느끼고 싶음
	일상생활의 어려움	도덕적 판단력 부재	임신 중에 마심, 술 마시기 위해 돈과 술 훔침, 옹고 그림의 판단 없음
		주어진 역할을 못함	집안일에 소홀함, 아이양육 제대로 못함, 직장 그만 둠
		자기관리력이 상실됨	대소변 못 가림, 소지품을 분실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사고, 돈에 대한 개념 없어짐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함	행동의 통제 상실이 음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걸음, 술 마시고 자살시도를 함
		주변사람들이 떠나감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짐, 가족들의 냉대를 겪음, 대인관계가 위축됨
		신체적 손상이 음	기억력이 손상됨, 조그만 마셔도 필름이 끊김
	단주와 재발을 겪음	부정적인 정서경험	죄책감, 수치감, 자격지심, 허탈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연민, 마음이 더 가라앉음
입원		알코올중독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함	
금단증상을 겪음		신체적 증상, 정신병적 증상	
	단주결심을 함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함, 음주행동에 대한 후회를 함	
	단주를 위한 행동을 함	운동을 함, 새벽기도를 감	
	stressor가 발생함	단주에 대한 주변인의 불신임을 받음, 예전의 고통이 되살아남	
	조절음주에 대한 기대를 함	한두 번의 절주경험, 허용적인 생각이 들	

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나타내었다(그림 1 참조).

중심현상은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으로 나타났고 ‘어릴 적 심리적 상처경험’, ‘가족과의 갈등’, ‘타인과의 교류단절’, ‘경제적 어려움’등의 범주가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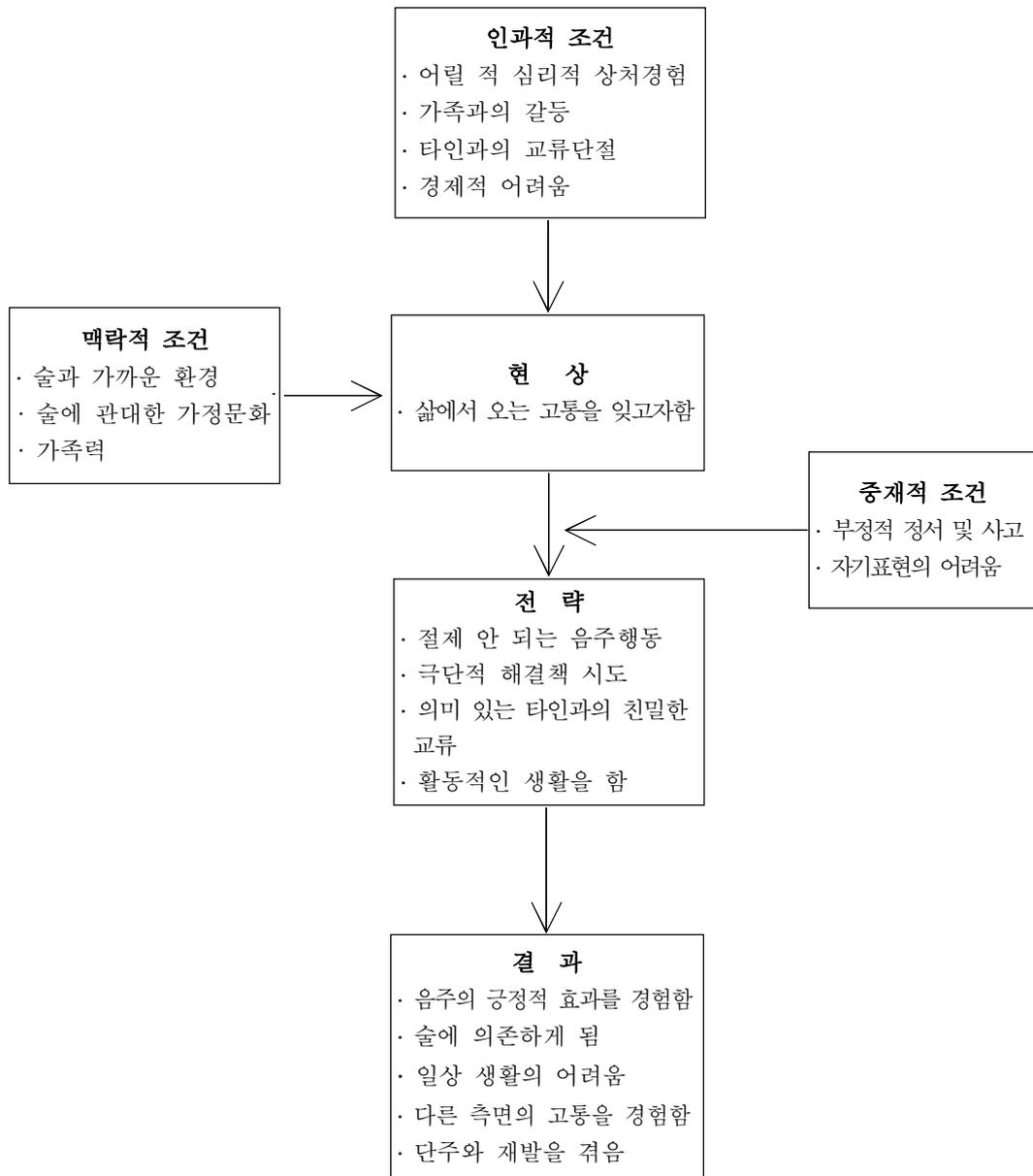


그림 1. 여자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주를 도출하게 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살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야 되고 지금 현재 당장 돈을 벌어야 생활  
을 꾸려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후 막 그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술 한 잔 먹으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참여자 8: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이 드신 분한테 성적인 저기를 당했어요. 바로 옆방 사시는 분한테, 그레가지고서는 그게 충격이 많았어요. 자라면서 계속...(참여자 7: 어릴적 심리적 상처경험)

그냥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어디 다음에 여자 다시 만나서 살아보고 한번 경험 좀 해봐라. 그런 상태로 내가 얘기해주면서 내가 합의이혼 해주마. 그 당시에 합의이혼 아니더라도, 저기 뭐 자기는 뭐 큰 재산도 없고 직장도 뭐 변변치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내 젊음 마음으로 내가 돈 벌어가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합의이혼으로 해줬어요, 그 이혼하고 나서도 막 견디기가 너무 힘들은 거야.(참여자 8: 가족과의 갈등)

집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새기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결 말내고 깨고 나면 또 먹으러 가고, 나는 내 자신도 이해가 안되요(참여자 5: 타인과의 교류단절)

일 년 동안 술 안마시고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돈 번 게 있는데 그 돈 모은 거를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난처하게 됐다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고 줬어야 했는데 이거는 다 떠어 먹고 도망을 가 버린거야. 그거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더라구.(참여자 8: 경제적 어려움)

맥락적 조건은 현상이 놓여 있는 구조적 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술과 가까운 환경’, ‘술에 관대한 가정문화’, ‘가족력’이 맥락적 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의 현상에 있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라났으며,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여 술과 친숙해져 있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술과 가까이에 있었다. 즉 술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집에 항상 술을 구비하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손만 닿으면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또 그들의 가정은 여자가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중독으로 가는데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맥락적 조건으로 인해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즉 중독과정으로 가는데 있어 어떤 전략이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음주를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와 더불어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주들은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가 직접 술장사를 했었어요... 손님이랑 싸워 갖고 또 한 잔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뭐 어떤 분들이 와서 가게 때려 부쉬고 뭐 누가 신고해서 경찰도 그러니까 그 삼년동안 거진 매일 마신 거예요. 양은 많지 않고 거진 뭐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신 날이 없었을 정도지.(참여자 2: 술과 가까운 환경)

저희도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또 모이면은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관대해요. 시대 같은 경우에도 큰 형님이 “\*\*야 술 한 잔 하자” 당연한 거지만 담배 피우는 거 나 맞담배 피울게 좀 너그럽고 자유롭죠.(참여자 1: 술에 관대한 가정문화)

우리 엄마도 마흔 넘어 가셨고. 마흔 넘어 갔고 동네 사람들 하고 어울려 계도 하고, 뭐 뭐 그러시지만 술을 그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또 술 드시면 내 같지 안 하고, 주사가 또 있으서. 딸들한테 욕을 하고, 그냥. 성질 다 내고. 막, 막 그 자식들 못 살게 싫었지. 싫었는데 왜 또 배웠는지 몰라.(참여자 5: 가족력)

중재적 조건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일컫는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및 사고’, ‘자기표현의 어려움’이 현상인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우울감, 분노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생각이 음주를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부정적 정서 및 사고가 강할수록 음주를 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는 것과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상과 같이 부정적 정서 및 사고와 자기표현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전략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 범주들을 중재적 조건으로 보았다. 면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속되다가 이런 사건이 나니까 그게 인제 순전히 아, 인제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자포자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9 부정적 정서 및 사고)

굉장히 밝고 이렇게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힘들었던 거 그런거 갖다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나 그런거 갖다 이렇게 내면 깊숙이 애기를 해보지 못했거든요.(참여자 1: 자기표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을 위해 ‘절제 안 되는 음주 행동’을 취하였다. 처음에는 사고 음주로 시작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혼자서 음주를 하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음주를 하는 장소도 처음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음주가 심해지면 집을 벗어나 여관에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술을 마시는 패턴을 취하였다. 또한 여관을 못 갈 경우가 생기면 장소에 구애 없이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술을 마시게 된다. 어떤 경우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사고나 자살 시도 등 극단적 해결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현상인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을 위해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심리적 교류를 시작하고 직장생활이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등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이상의 행동들은 모두 맥락적 조건에 주어진 현상인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을 위한 참여자의 행위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러구 당장 뛰어나왔어요. 그러구서는 인제 차장한테는 월급, 그동안 일한 거 온라인으로 부쳐라 그러구서는 인제 나왔는데 그때부터 낫술을 먹은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3박4일인가를 술 먹구...(참여자 4: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

자살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근까 그 집요함이 나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주위를 다 끊어놓고 자기가 알지 않으면 다 끊어놔야 되는... 내가 너무 외로워지고 그렇게 되어 지더라구. 근까 막 신경쇠약 같은 게 막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도 내가 죽는 것만이 저 사람한테 헤어나는 것 같애 그렇지 않으면 못 헤어날거 같애. 근데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는데...(참여자 3: 극단적 해결책시도)

그 남자가 중독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병을 고쳐주겠다 해가지고서는 여기 병원도 같이 와서 약도 타러 오고, 안 간다 하면 자기가 회사에 조퇴하고 데리고 와서 약 타다 먹이고 술 끊는 약도 다른 데가 주문을 해서 사서 주고 그랬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참여자 7: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교류)

새벽마다 백일기도하고 와서 또 가게 나가고 또 툼툼이 평일 날은 또 국악 하러 가고 이러니까 이 술 마실 저기가 시간이

없는 거야. 생각할 시간이 없는거야.(참여자 8: 활동적인 생활을 함)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1998).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함’, ‘술에 의존하게 됨’, ‘일상 생활의 어려움’,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함’, ‘단주와 재발을 겪음’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충만감을 느끼는 등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심리·신체적으로 술에 의존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행동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술을 마시는 원인이 된 고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음주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단주를 시도한다. 그러나 다시금 스트레스에 직면하거나 음주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재발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이라는 현상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것이기에 결과로 보았다.

진짜 내가 어떻게 그 6개월 판결날 때까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뛰고 돌아다녔는지 여기저기 함의 보면서 돌아다녔는지 술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 같애. 기운이 안 일어나질 못해 밥도 못먹지.... 술이 없으니까 술을 안마시잖아요. 여기서 한 200미터도 못 걸었었어.(참여자 2: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함)

나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몇 번 생각을 했거든. 술 사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구요. 술 사러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참여자 9: 술에 의존하게 됨)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다시 술로 빠져 들어서 술친구가 되버리고 그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다보면 또 술 때문에 깨져버리고 또 열심히 마음먹고 다시 직장생활 해야지 하다보면 또 직장에서 뭐 회식하고 또 동료들하고도 어떻게 술자리 마련하다 보며는 다시 또 술 먹게 되면 또 직장에 못나가다보면 또 그 직장이 깨져버리게 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참여자 8: 일상생활의 어려움)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시 그 술구덩이로다가 빠졌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파탄 났고, 자식도 잃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많죠.(참여자 7: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함)

두 달 동안 열심히 잘 다녀요, 술 안 먹구 이러면 몸이 지치고 힘들면 또 술을 대요, 어~ 되네. 절주가 되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1주일 있다가 다시 또 1병을 사다가 마셔요, 괜찮아요. 어~ 진짜로 되네. 이거 중독 아니네 그럼. 그리고 있다가 또 3주정도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술에 끌려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어지지 못해요.(참여자 7: 단주와 재발을 겪음)

## 과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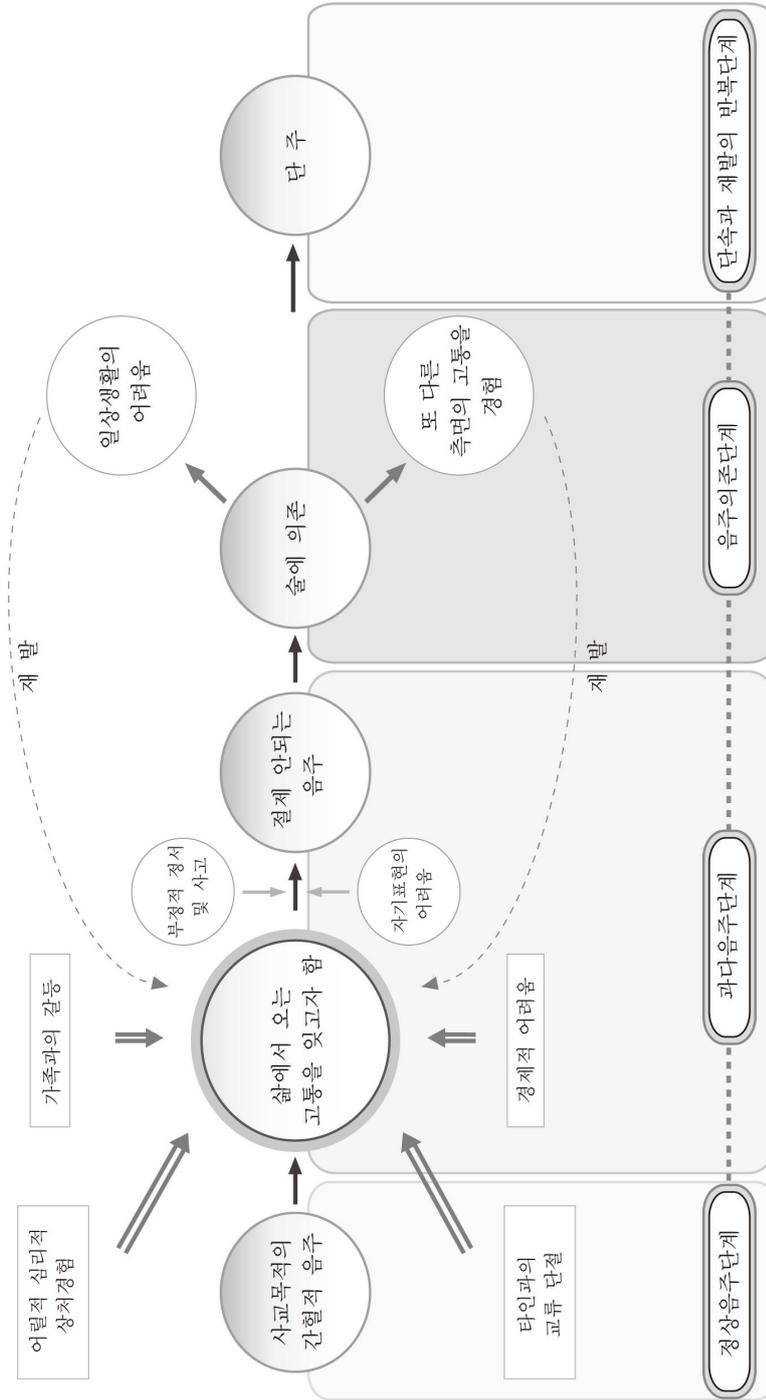
과정의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행위 상호작용의 연속들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중독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상음주 단계」, 「과다음주 단계」, 「음주의 존 단계」, 「단주와 재발의 반복 단계」의 4단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행동변화를 나타냈다(그림 2 참조).

### 정상음주 단계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음주를 하는 등 음주를 하는 기간이 짧았다. 이 단계에서 마시는 술의 양은 적었고 대부분 친구모임이나 남편 친구들 모임 등에서 마시는 사교음주가 대부분이었다. 즉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음주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한두 잔 마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통제 가능한 음주행동을 보여주어 음주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과다음주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음주를 했음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다음주 단계 이전에 비음주 단계였던 참여자들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술을 마셨으며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대화가 잘되는 등의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 과다음주 단계

이 단계에 직면하는 참여자들은 정상음주 단계를 지속해 오다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큰



〈그림 2〉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

심리적 고통에 직면한다. 즉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나 과다음주, 대화단절이나 무관심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는 이혼을 당하는 등의 경험은 참여자를 매우 힘들게 하였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거나 남편의 사업실패와 무능력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허탈감은 참여자를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있게 되는 등의 타인과의 심리적 교류단절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릴 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나 어머니와의 부정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현재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참여자의 부정적 생각과 그에 따르는 우울감이나 분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자신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기표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통을 잊고자 참여자들은 술을 마시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음주는 사람들과 마시는 음주가 아닌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점차 술의 양도 많아지고 낮술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술을 몰래 마시고 감춰서 사오는 행위가 나타난다.

#### 음주의존단계

과다음주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을 잊고자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절제 안 되는 음주 행동이 지속되다보면 마침내는 술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때는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험하지 못하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술에 손이 가는 등 통제 불가능한 음주행

위를 한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음주로 인해 자기관리력이 상실되거나 돈과 술을 훔치는 등의 도덕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도 하였다. 이때도 술을 몰래 마시며 감춰서 사오는 행위가 나타난다. 술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가족들의 냉대와 남편이나 주변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손 떨림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환시·환청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 금단 증상을 겪게 되며, 이러한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수치감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경험하는 등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된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다른 측면의 고통까지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런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술에 의존하게 되며, 마침내는 알코올 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 단주와 재발의 반복 단계

이 단계에서의 참여자들은 음주의존 단계에서 허덕이다가 남편이나 치료진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심리적 교류를 하게 되면서 단주를 결심한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등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주를 시도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타인과의 심리적 교류나 활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진 심리적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단주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단주를 지속하다가도 단주를 지속하게 했던 요인들이 없어지거나 음주에 대한 주변인의 감시가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조절음주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다시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이 나타나는 등 재발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어

편 계기로 다시 단주를 하고 그 이후 재발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단주와 재발의 반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핵심범주란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밝혀진 중심현상이다(Strauss & Corbin, 1998). 먼저 연구의 중심현상인 핵심범주를 각기 다른 범주와 연관을 지어 통합하는데 이는 설명적인 진술을 통하여 이야기로 전개함으로써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서술적 문장을 적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야기 윤곽을 통해 앞서 기술한 이야기를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중심범주를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은 처음에 술을 마시는 동기를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때 참여자들은 술을 마시으로써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의 음주의 좋은 점을 경험한다. 사고를 목적으로 가끔씩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참기 힘든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남편의 무관심이나 대화단절 등으로 힘들어하였고 시댁, 친정과의 갈등이 많은 등 가족들과의 심리적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남편의 퇴직, 도박으로 인한 파산, 남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참여자들을 더욱 고

통스럽게 만든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등의 물리적, 심리적 교류단절도 참여자들을 힘겹게 만든다. 그리고 어릴 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지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초기의 고통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여자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런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예전의 마셨던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음주를 하게 된다. 이때의 음주는 사고 음주가 아닌 혼자서 음주를 하게 되며 술을 마시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더욱 술을 마시게 하는 요인으로는 부정적 생각 및 정서가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에게 닥쳐진 고통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감이나 분노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이 심화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성격 특성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대부분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는데 서툴고 인색하였다. 즉 어느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적인 힘듦을 술로써 위로를 받았다.

또한 음주를 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보면 참여자들에게는 항상 술이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릴 적부터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라났으며, 술은 음식이라는 생각 하에 부모님들이 술을 어릴 적부터 조금씩 마셔보게 했다. 또한 음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여 술과 친숙해져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술과 관련된 장사를 한다거나 술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항상 술을 구비하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손만 닿으면 항상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밖만 나가면 어디든지 가서 술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참여자들이 술을 더욱 마시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술을 마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혼자서 음주를 하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음주를 하는 장소도 대부분이 집이었으며 어떤 경우는 여관에서 마실 때도 있었고,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 할 때는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장소불문하고 마시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술을 마시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중독 상태에 있을 때라도 여럿이 마실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두 잔 이상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남자들 앞에선 더더욱 조심하는 패턴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혼자 마시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이런 전략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심리·신체적으로 술에 의존이 되고 점차 술을 마시게 된 원인이 된 고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경험하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음주를 하는 등 악순환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은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되며, 알코올에 의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 된다.

## 논 의

지금까지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경험을 중심으로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음주는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이라고 파악되었다.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여성 알코올의존자의 중독과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조건들 및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그로 인해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루고자 한다.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논의

### 중심현상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심현상을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들에게 닥쳐진 고통을 힘겨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은 현재의 고통 뿐 아니라 과거의 고통까지도 내면에 억눌린 채로 남아있어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이러한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시게 된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을 중심현상이라고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정숙(2000)와 임선영(2002)에 의하면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경험은 사교음주를 위한 즐거움보다 어려운 생활사건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의 고통을 술을 마심으로써 경감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재(2006)도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음주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있어 중심현상을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이라 칭하여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인과적 조건 · 중재적 조건 · 맥락적 조건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여성알코올 의존자들의 중심현상인 ‘삶에서 오는 고통을 잊고자 함’을 가져오는 인과적 조건은 ‘어릴 적 심리적 상처경험’, ‘가족 간의 갈등’, ‘타인과의 물리적 · 심리적 교류단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초기의 상처경험이 음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Beckman, 1978; Brenda, 1993; Wilsnack, 1997)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렸을 적 고통이 현재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힘들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Long(1994)이 언급한 초기 외상적 경험을 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기억들이 음주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가족 간의 갈등도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 중의 하나로 나타났는데, 가족 간의 갈등 중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은 남편의 과다음주, 신체적 폭력, 대화단절, 무관심 등 남편과의 갈등을 많이 보고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Armor et al, 1978; Moos & Moos, 1984; Long, 1994; 이정숙, 2000)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특히 Moos와 Moos(1984)는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결혼한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경우, 배우자가 그들의 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유대관계가 이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타인과의 물리적 · 심리적 교류의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의 사망과 같은 물리적 단절이나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심리적 단절은 참여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경제적 어려움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이 부정적 정서 및 사고와 자기표현의 어려움이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김성재(2006)도 알코올 중독 여성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음주효과를 추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라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의 밑바탕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임선영(2002)도 부정적 신념이 내재된 상태에서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때 가장 강력하게 알코올 의존이 촉발되고 유지되기 쉬움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 정서 및 사고와 더불어 자기표현의

어려움도 중독이 가속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표현의 어려움은 감정표현을 잘 못하고 의사표현이 부적절하고 자기주장력이 부족함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연구들(정원후 외, 1997; 성상경 외, 1999; 이정숙, 2000; 임선영, 2002)에서도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이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은 수동적이고 자신 내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표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특성을 가진 여성들은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삭히거나 쉽게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밝혔듯이 자기표현의 어려움은 국내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공통적인 성격특성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환경적인 측면으로 일컬어지는 맥락적 조건으로 언급된 것은 ‘술과 가까운 환경’, ‘술에 관대한 가정문화’, ‘가족력’이다.

본 연구에서 어떤 참여자들은 술집을 운영하거나 술집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등 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면서 하루 종일 술과 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는 이길홍 등(1973)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4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주류 취급자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까이 술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참여자들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술을 마시는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가정환경적인 요인도 음주를 하는데 지대

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김성재 (2006)도 음주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음주가 용이한 환경적 요소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음주행동과 음주규범 역시 사회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의 음주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자라난 가정은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술을 만들어 마셔왔던 경험들을 진술하고 있고, 어떤 참여자는 술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이만홍 등(1997)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족 문화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이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 결혼 후 집안의 분위기가 시댁식구들과 스스럼없이 술을 마셨으며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 가정이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가정환경이 음주행위가 매우 친숙한 환경이라는 임선영(200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서, 술에 보수적인 가정환경보다는 음주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보인다.

가족력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 음주자들은 음주관련 가족력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선행연구들(Goodwin, 1973; Cotton, 1979)에서 밝혔듯이 여성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 유전적 소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쪽의 음주가 더 심했던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는 Rathod & Thompson(1971)와 Turbull(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학습적 측면에

서 모방의 기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같은 여성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모방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독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과 모방이라는 사회적 기제 사이의 상대적인 공헌도를 살펴볼 수는 없으나, 이런 두 가지 기제가 여성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 ‘극단적 해결책 시도’,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교류를 함’, ‘활동적인 생활을 함’으로 분석되었다. 절제 안 되는 음주행동에는 혼자 숨어서 마시는 음주패턴도 포함되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고통을 잊기 위해 음주를 하는데, 주로 숨어서 혼자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주패턴은 다른 연구들(Beckman, 1978; 이정숙, 2000)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진다고 선행연구(McLachlan 외, 1983)들은 보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그러한 면을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술을 숨기고 몰래 마시는 패턴은 나이가 많은 여성 음주자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40~50대 여성 음주자들은 30대 음주자들에 비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에 대해 더 수치감을 느끼며 힘들어하면서 음주행위를 숨기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런 점으로 보아 같은 여성이라도 나이에 따르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해결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어떤 참여자들의 경우는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자신에게 닥쳐진 고통에 대해 정서중심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정서적 불편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을 때 음주문제와 더불어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Murphy(1992)에 의하면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6~20%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특히 부부갈등이나 직장문제, 범법행위로 인한 구속 상태일 때 더 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응적인 대처기제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ilsnack(1984)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인간관계의 위기에 더 민감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의 원만함은 여성 음주자에게 있어 단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친밀한 심리적 교류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치료진과의 원만한 교류 등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힘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데 유효유가 되고 있다. 임선영(2002)도 중독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술에 의존하지 않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심리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고통에 직면해 있을 때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등 바쁘게

생활을 하면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여가생활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알코올 중독 여성이 술이 없는 여가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Hood(2003)의 제안이 의미 있는 것임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 결과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중독과정 경험의 결과로 드러난 양상을 모아 중독과정의 결과에 대한 이해 및 개념화 작업을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중독과정 경험의 결과로 드러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함’, ‘술에 의존하게 됨’, ‘일상생활의 어려움’,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함’, ‘단주와 재발을 겪음’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의 긍정적 효과로 참여자들은 술은 자신을 지지하는 자원이 되며 신체적 힘 및 기분향상, 대화의 촉진제가 되고 위로가 되며 충만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술을 마실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효과로 기분전환, 자기위로, 자기고양으로 정의한 임선영(2002)의 보고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되며, 술의 의존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참여자들은 집안일에 소홀하거나 아이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못하고 자기관리력 상실이나 행동의 통제 상실을 가져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의 고통

을 경험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술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주변사람들이 떠나가고 기억력 장애 등의 신체적 손상이 오며 수치감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하고 금단증상을 겪고 입원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여성들은 그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음주를 권하는 남성중심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이중적임을 알고 있으며,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에게 제한적인 음주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포함한 여성의 음주행동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남성의 시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면화된 남성적인 시각을 통한 음주행동에 대한 평가는 이후의 자기 자신의 음주행동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토대로 기능하게 된다(김성재, 2006). 본 연구에서도 술을 마심으로써 죄책감, 수치감, 자기혐오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정서의 밑바탕에는 내면화된 남성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낙인으로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Beckman, 1978; Corrigan, 198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인들의 낙인보다는 스스로에게 부과된 죄책감과 낙인이 더 부각되었다. 이들은 진술하길, 남들은 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남들이 해꼬지 할 거 같고 욕할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내면화된 남성적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수록 남편, 가족, 친구 등의 주변사람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술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해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선영

(2003)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군과 정상 여성의 비교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자가 사회적 지지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등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지지체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음주행동에 대한 후회,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새벽기도를 가거나 A·A모임 참석 등을 하면서 단주를 시도한다. 남성 알코올 의존자의 회복 체험을 연구한 이정숙(1996)은 알코올 의존자임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A·A관계유지, 단주생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때 회복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appel(1993)은 단주유지 요인으로 A·A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료 간의 경험담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보이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주양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주를 하기 위해 A·A모임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Bischof 외, 2000; Zemore & Kaskute, 2004)들이 상당수 있는 점으로 보아, 단주에는 A·A의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A모임이 알코올 의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재발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권학선(2002)은 재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조절음주에 대한 기대, 술에 대한 갈망 등으로 꼽고 있으며, 채숙희(2005)은 그에 덧붙여 우울, 정서 중심적 대처, 음주축진신념, 주변인 음주 등이 재발을 예언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발을 경

험할 무렵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여 바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생각과 더불어 조절음주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재발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남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지만,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비슷한 경로를 겪는다고 보인다.

### 중독과정에 관한 논의

알코올 중독의 진행단계를 설명하는 모델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모델이 Jellinek(1960)의 모델이다. 그는 남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중독과정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하였다. 즉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Prealcoholic symptomatic phase), 전구적 단계(Prodromal phase), 중대한 단계(Crucial phase), 만성적 단계(Chronic phase)이다. 최근에 Brown(1995)은 중독의 진행과정은 사회적 음주단계, 문제성 음주단계, 중독증의 단계, 중독증의 말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각 단계별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두 모델들의 설명을 보면 단계에 대한 명칭은 다르나 내용은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자들이 언급한 중독과정을 거쳐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친구모임이나 남편 친구들 모임 등에서 마시는 사교음주가 대부분이었고 대체로 통제가 가능한 음주행동을 보여주어 별다른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상음주를 해오다가 참여자들은 감당하기에 어려운 큰 고통에 직면한다. 이때부터 참여자들은 주로 혼자 술을 마시며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 단계부터 몰래 음주를 하며 술을 감춰서 사오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때도 해결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 마음에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며, 마침내는 술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때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술에 손이 가는 등 통제 불가능한 음주행위와 도덕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한다. 술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주변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손 떨림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환시·환청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 금단증상, 수치감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 등과 같은 또 다른 측면의 고통을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술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하듯 남성 알코올 의존자들과 진행과정은 비슷하게 거쳐 가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심리적 갈등이 더 많고 진행과정이 빠르고 더 적은 양의 음주량에도 신체적 합병증이 더 많이 동반되는 등 중독진행의 내용과 속도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진행과정의 차이를 보기 위해선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본 연구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중독과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접근을 활용하여 ‘잠시나마 과거와 현재의 심리적 고통을 잇는 과정’을 핵심범주로 하는 실체이론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의 알코올 중독과정 경험을 구조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경험과정을 파악함으로

써 여성알코올 의존자들의 중독과정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개념들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의 인지, 행동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파악함으로써 심리치료의 측면에서 중독과정에 있는 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중독과정에 관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나온 범주를 수정하고, 범주간의 관계를 정련화해서 개발된 실체이론이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 알코올 상담센터 등의 여러 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중독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과정을 포괄적으로 알아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재발과정, 회복과정 등으로 연구의 초점을 좁혀 각 이슈별 깊이 있는 연구결과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지식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독현상 이해와 관련된 변수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연령 면에서, 사회경제적 수준면에서, 학력 면에서 더 엄격히 통제하여 특정한 특성을 갖는 집단의 경험에 국한한 깊이 있는

현상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알코올 중독과정 경험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중독과정 경험을 연구하여 ‘알코올 중독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 남녀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섯째, 최근의 산업화 과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의해 직업을 가진 여성의 음주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경우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단순 노동직이나 일용직 등 직업적 성취가 낮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서의 음주자체는 증가하지만 그것이 입원을 필요로 하는 남용, 의존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일부 설명될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성재 (2006). 알코올중독여성의 음주경험: 여성 주의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5(4), 362-374.

경남일보 (2005.11.11). 여성 알코올 중독 위험 수위.

권학선 (2002). 근거이론을 적용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 (2005.3.29). 여성 알코올 중독 느끼는데……. “어디, 여자가” 편견속에 방치.

박두병, 남범우, 신광철, 나철 (1996). 가족력 유무에 따른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임상적 차이 연구. 신경정신의학. 35(6), 1195-1202.

성상경, 신동환, 송중호, 이규향 (1999).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6), 1262-1272.

송신희 (2003).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의 도움요청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각원 (2005).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아상태와 우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길홍, 이수일, 김종녕 (1973). 한국인 여성 습관성 음주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한국의 과학, 5(12), 524-537.

이만홍, 유상우, 이호영, 남궁기, 조은영 (1997). 한국인의 알코올 중독증의 개념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II). 신경정신의학, 36, 1022-1032.

이정숙 (2000).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음주경험. 정신간호학회지, 9(4), 409-427

임선영 (2002).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영 (2003). 여성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원후, 김성부, 장기용, 손진욱, 박철수 (1997). 입원한 남성 및 여성 알코올리즘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및 인격적 특성비교. 신경정신의학, 36(4), 688-704.

최진경 (2003). 여성 문제음주자에 대한 사정요인 탐색을 위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숙희 (2005). 알코올 의존의 재발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음주문화센터 (2002). *알코올 백과*. 서울: 한국음주문화센터
- Armor DJ, Polich JM, Stambul HB (1978). *Alcoholism and treatment*; New York, Wiley
- Bedi AR
- Beckman, L. J. (1978). Women alcoholics: A review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tud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 797-824.
- Bischof, G., Rumpf, H.J., Hapke, U., Meyer, C., John, U. (2000). Gender difference in natural recovery from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6), 783-786.
- Brown.S (1995). *Treating Alcoholism*.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 Corrigan,E. M. (1980). *Alcohol women in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tton, N. (1979). The familial incidence of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0, 89-116.
- DSM-IV-TR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Goodwin, D. W., Hill, B., Powell, B., & Viamonter, J. (1973). Effect of alcohol on short- term memory in alcohol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2, 93-94.
- Hood, C. D. (2003). Women in recovery from alcoholism: The place of leisure. *Leisure Science*, 25, 51-79.
- Jellinek, E. M (1960). *The disease concept of alcoholism*, New Haven, CT;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 John W. Creswell (2006).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에 출판)
- Long, A., Mullen, B (1994). An Exploration of women's perceptions of the major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ir alcohol abu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 623-639.
- Lyn R., & Janice, M. M (2007). *질적연구방법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신경림, 고성희, 조명옥, 이영희, 정승은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McLellan, A. T., Woody, G. E., Luborsky, L., Brien, C. P., & Druley, K. A. (1983). Increased Effectiveness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A Prospective Study of Patient-Treatment Matching.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1(10), 597-605.
- McNally, E. B. (1989). *Lesbian recovering alcoholics in A.A. Doctoral Dissertation of New York University*.
- Moos, F. H, Moos, B. S. (1984). The process of Alcoholism III: Comparing functioning in families of Alcoholics and matched control families, *Journal of Studies Alcohol* 45, 111~118.
- Moos, R. H., Brennan, P. L., Fondacaro, M. R. & Moos, B. S. (1990).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responses among older problem and nonproblem drinkers. *Psychology and Aging* 5(1).
- Morse, J. M. & Field, P. A. (1997). *질적간호연구 방법*. (신경림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원전은 1995에 출판)
- Murphy, G .E. (1992). Multiple Risk Factors Predict Suicide in Alcohol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6), 107~124.

- Steinar, K. (1998). 인터뷰[*InterViews*]. (신경림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4에 출판)
- Strauss, A. L., & Corbin, J. M. (2005). 근거이론의 이해(*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전은 1990에 출판)
- Turnbull, J. E. (1994). Early background variables as pregnancy.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25. 143-148.
- Wilsnack R. W., Wilsnack S. C., Klassen A.D. (1984). Women's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Patterns from a 1981 national survey. *Am J Public Health*, 74, 1231~1238.
- Wilsnack, S. C., Vogeltanz, N. D., Klassen, A. D., & Harris, T. R. (1997). Childhood sexual abuse and women's substance abuse; National survey findings, *Journal Studies on Alcohol*, 59, 264-271.
- 1 차원고접수 : 2009. 10. 23.  
심사통과접수 : 2009. 12. 4.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8.

## The process of addiction among alcohol dependent females – Focusing on Grounded Theory approach –

**Shin Young Ju**

Chuncheon National Hospital

**Kim Yoo Sook**

Seoul Women's University

For this study, I raised the question, “How is the addiction process manifested for an alcohol dependent female?”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14 persons who were selected among those diagnosed alcohol dependent according to the diagnosis criteria DSM-IV-TR (2000)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in alcohol war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grounded theory. The data analysis is based on the contents of interviews. An initial open coding was conducted to draw concepts,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followed by an axis coding to formulate the paradigm model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merous categories. Then, selective coding allowed the author to discover the core categories of addiction process among alcohol dependent females, on the basis of which relations between the core categories were developed into a grounded theory. The core categories represent ‘process of temporarily leaving behind psychological pai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Over time this process was developed into drinking activity without self-restraint and gradual dependency upon alcohol. The process discussed in the study, that is, the process of temporarily leaving behind psychological pai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may provide a foundation on which a practical program can be developed by allowing to apply the addiction process theory among alcohol dependent females. This may be of use to hospitals and alcohol-related counseling agencies that provide treatment for alcohol dependency.

*Key words : alcohol dependent females, grounded theory, in-depth interview, addiction process*